

# 공부를 하면서 고양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글 김경수(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시민이 된 지 내년이면 25년째가 된다. 그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사느라 고양시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올해 환갑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20년 정도의 삶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평소 관심이 많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관광문화 분야 자격증에도 도전하기로 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처음에는 중급에 도전해 볼까 생각했으나 생각을 바꿔 고급에 도전해 이번 4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1급으로 합격했다. 약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정리해서 공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정리해본다.

첫 번째, 고양시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도시이다. 관광특구는 외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1993년도 도입된 제도로써 2019년 4월 현재 서울 6곳, 경기도 4곳 등 전국적으로 31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돼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두 번째,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군과 백성이 일본군과 싸워 승리한 곳이다. 행주대첩 시 성내 아녀자들이 치마 위에 짚은 덧치마를

대어 적군들에게 던질 돌맹이를 운반한 것이 행주치마의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세 번째,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인 서삼릉과 서오릉이 덕양구에 있다. 참고로 조선왕실의 무덤은 문헌 사람의 신분 따라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陵)', 왕의 생모·왕세자·빈의 무덤은 '원(園)', 대군·공주 등의 무덤은 '묘(墓)'로 구분돼 불린다.

네 번째, 중남미문화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유니크베뉴 20곳 중 한 곳이다. 유니크베뉴란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회의 전문시설(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아닌 개최지의 독특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일컫는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내가 사는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고양시민들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고양소식을 통해 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